

미래를 함께 나누며

미국국가형제회회장단소식

- Jan Parker & Mary Bittner-

2017 년 국가형제회 총회를 다시생각할때 믿음, 형제애, 보람 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모두들에게 총회는 믿음이였다. 총회는 우리들을 기도속에서, 관계를 이루고 계속된 양성 안에서 하나로 엮는 형제애였다. 총회는 이 모든것을 이룩할수있도록한 보람찬 모임이였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50 명의 국가형제회 봉사자들이 닷새동안 의 모임을 잘 치룰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총회개요는 타우지의 특별난에서 찾아 볼수 있는데, 특히 주목할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2017 년 재속프란치스코회교서:

재속프란치스코회 교서는 국가형제회 회장이 총회때마다 하는 연설이다. 그연설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포괄적인 레포트 이다. 실제 프란치스코회 교서 레포트는 매년 총회 시작전에 보내어진다. 올해 교서는 지난해 에 국가형제회가 이룩한 여러 업적들의 개요 그리고 형제회가 맞고있는여러 도전 과제들을 윤곽한 12 페이지의 레포트 이다.

참고로 국가평의회의 보조적레포트 가 그교서에 첨부되어있다. 만약 국가 형제회의 현상태을 알고 싶다면 이 레포트를 꼭 읽어야 된다. 그교서는국가형제회 웹사이트 통해 "Annual Reports to the OFS-USA" 에서 찾거나, Jane DeRose-Bamman 의 이메일 janedsfo@msn.com 로 신청하여 교서 복사판을 받을수 있다.

청년들, 성소 와 다문화주의 을 위한 장기적목표

재속프란치스코회 가 절실히 필요 를 느끼는것은 회원들과 단위형제회들이 청년들, 성소, 다문화주의 핵심적분야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권장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흥하기위하여 지난해에 국가형제회가 이 분야들에 대해 강조를 거듭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노력을 축복하셔서 Kathleen Molaro (청년들), Jane DeRose-Bamman (성소), 그리고 Willie Guadalupe (다문화주의) 자매님들이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7년 국가형제회 총회때 이 3명의 자매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계획들을 경청할수 있었다. 이 자매님들의 발표는 아주 독창적이었고 우리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청년들 담당인 Kathleene Molaro는 재속회모임사진을 보여주며 청년들이 이사진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재속회를 끌어들이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 우리모두 용기를 내어 청년들을 참석할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드는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하였다. 성소 담당인 Jane DeRose-Bamman은 "성소는 휴가가 없다"고 하면서, 비행기타고 오면서 타우지를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미국재속회 타우지의 새로운 로고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우리모두 vocation tool box를 열어 재속프란치스코회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Willie Guadalupe는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관한 발표를 하였는데, 다른 언어, 문화 혹은 여러 장애물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고립하거나, 다른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포용성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사랑의 문제 일뿐만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분의 발표는 실용적이고 중요한 권고 제시와 단결을 위한 진심어린 기도로 끝마쳤다.

Jane, Kathleen과 Willie는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분들인데, 이분들의 열정을 각 단위형제회와 지구형제회 안에서 함께하지않으면 청년들, 성소, 다문화주의 라는 핵심적 분야들을 쇠신할 수 없다. 어떻게하면 이것을 완수할 수있을까? 각 단위형제회에서 이 자매님들을 초빙할 수있다. email이나 전화로 초빙하여 그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들을 듣는것이다. 이 자매님들은 준비되어있으며, 여러분의 형제회가 활동적으로청소년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새로운계획들을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성소를 홍보할 수있게, 그리고 여러 다문화속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풍부한 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가능한것은 그분들의 메시지와 권고들을 환영할 수있다. 미국재속회 웹사이트에서 그분들의 발표내용을 설명한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찾아보고, 각단위 형제회나 지구 형제회 미팅에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미국 타우지에 실린 청년들,성소개발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글들을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각 단위형제회, 지구형제회에서 이 메시지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면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변화가 있을것입니다.

2018 년 국가형제회 총회 주제

새로운 해는 새로운 국가적 주제를 동반한다. 2018 년에는 Pauline Rule 회칙의 40 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의 주제는 이회칙을 반영 한다. 총회때 통과된 주제는 " Renewed and Confirmed: Live the Treasure !" 인데 " Celebrating 40 years of our OFS Rule" 이란 귀절도 포함되어있다. 1978 년도 인준된 우리들의 회칙은 우리들이 분명히 기념해야할 선물이다. 이 회칙이 새해에도 우리모두가 복음적 삶을 살도록 인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모두 이회칙안에서 신앙적, 형제애적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모두 프란치스칸들이 됩시다!

세상은 프란치스칸 정신, 프란치스칸적인 삶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완벽하게 프란치스칸 적 삶을 사는것 입니다.

~교황 비오 12 세 께서 1956 년 7 월 1 일 이태리 재속프란치스칸들에게 보내신 문서 에서~